

▶ 협회장 동정

○ 제10차 이사회 개최

지난 12월 22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할당관세 적용 건의·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2009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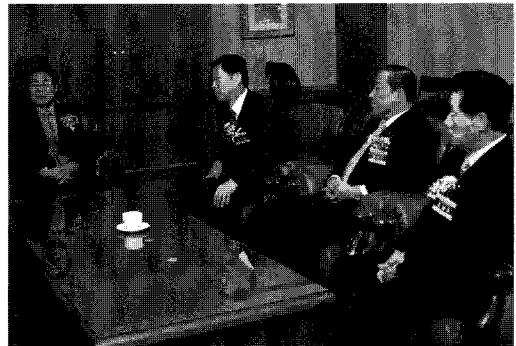


조 남 조
한국사료협회 회장

○ '2009 전국돈육생산자대회' 참석



▲ 2009 전국돈육생산자대회 모습.



▲ 왼쪽부터 농식품부 장태평 장관,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농협 축산경제대표 남성우, 본회 조남조 회장.

지난 12월 22일 한국마사회 컨벤션홀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업계 주요 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9 전국돈육생산자대회'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장태평 장관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장들과 업계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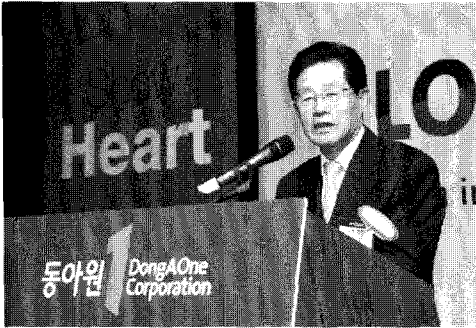
○ 세미나 강사 예방 접견

지난 12월 3일 개최된 '국내외 사료산업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세미나 강연을 하기 위해 내한한 미 캔사스주립대 국제곡물·해운 컨설턴트인 제이 오닐과 미 에그모션사 DDGS 컨설턴트인 팀 칼슨 일행의 예방을 받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 했다.

○ 제9차 이사회 개최

지난 11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업계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 동아원(주) 출범식서 기념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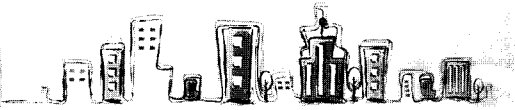


조직장은 지난 11월 16일 63빌딩에 있는 본사에서 개최된 동아원(주) 공식 출범식에 참석하여 “제분과 사료라는 양대축으로 새롭게 출범한 동아원이 앞으로도 더욱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원하는 축사를 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제2회 한우의 날 기념행사 참석



지난 11월 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한우의 날(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한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하여 축산인들과 환담을 나누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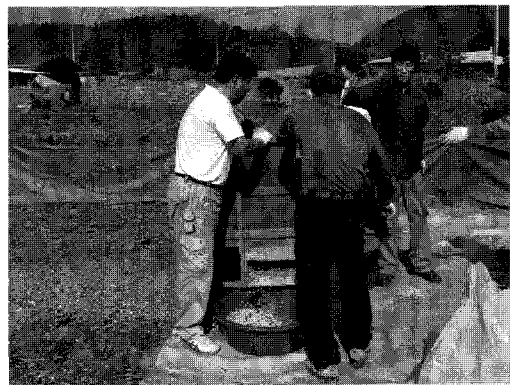
▶ 협회동정

○ '국내외 사료산업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본회는 미국곡물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3일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국내외 사료산업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세미나를 성공리에 개최했다.(상보 세미나 릴레이 참조)

○ 자매결연마을 농촌 일손 돕기 가져



본회는 지난 10월 30일 자매결연마을인 강원도 평창군 응암마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본회는 이날 콩타작과 벃단 나르기 등 일손이 모자라는 응암마을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농사일을 도왔다.

▶ 업계동정

○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대표자 변경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대표자가 지난 10월 19일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 대표이사 : 장원철 · 홍기호(각자대표)

○ 보령TMR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변경

보령TMR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지난 10월 27일부로 종전의 이계상씨에서 김민선씨로 변경됐다.

○ 대한사료공업(주)

상호변경 및 본사 이전

대한사료공업(주)의 상호 및 본사가 지난 12월 1일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변경내용>

△ 상 호 : 대한사료 주식회사(DAEHAN FEED CO., LTD.)

△ 본 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 전화 및 팩스번호는 종전과 동일.

○ 사료산업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사료산업 정책을 개발하고 국내외 사료자원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나갈 사료산업연구회가 창립됐다.

사료산업연구회는 지난 11월 23일 수원 축산과학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연구회 회칙과 임원 선임, 수지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연구회는 이날 초대 회장으로 한국사료협회 박장희 사료기술연구소장을, 부회장에는 강원

대학교 오상집 교수, 감사에는 중앙대학교 백인기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품목연구단체 육성에 따라 조직된 이번 연구회는 앞으로 사료의 수급과 자원개발, 품질과 안전성 확보 방안, 사료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연구회는 수급개발분과, 품질안전성분과, 정책홍보분과, 조사료분과 등 4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 동아원(주)

공식 출범식 가져

- 2015년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것
- 2015년까지 전체 1조원, 해외사업 4,360억원의 매출 달성할 것



▲ 동아원(주) 출범식 공식행사 모습.



▲ 새로운 디를 선보이고 있는 이창식 대표이사.

“지속가능한 세계경영을 통해, 2015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국내 대표적인 제분·사료업체 동아원(주)이 지난 11월 16일 본사가 소재한 여의도 63빌딩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2015년도에 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발표와 출범선언,

CI공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동아원은 기존의 제분과 사료사업의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을 도모하고 기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해외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아원은 2010년부터 ‘글로벌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전사회적 역할수행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아원은 이를 위해 주력사업인 제분과 사료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 첨단화와 친환경적 생산 프로세스 구축, 그리고 외국과의 기술 제휴 및 우수인력의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2015년 5,0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아원은 제분사업 분야의 1위 자리를 보다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료업계 상위 5대 기업에 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중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미국 등지에서 벌이고 있는 해외 사료사업을 ‘식량자원 개발’ 차원으로 확대 진행한다. 그동안 국제 곡물가와 환율 등 대외환경 부침에 민감한 사료사업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제고 하고,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식량안보’에 적극 기인하는 동시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부분에서만 약 4,4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동아원은 녹색 IT 기반 친환경 융합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계획과 사업전략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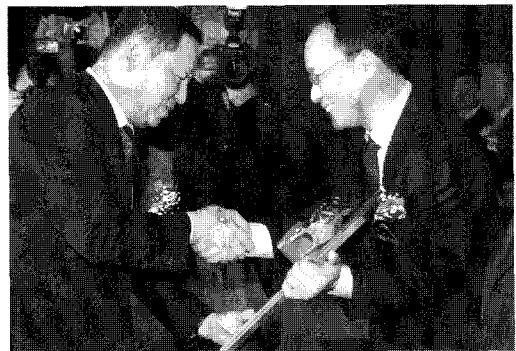
동아원 이창식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동아원은 기존의 제분과 사료사업의 한계를 뛰어 넘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고객 존중과 인간 존중, 가치 지향, 열린 커뮤니케이션 및 열정 등 기업의 5대 정신을 근간으로, 기존의 국내 사업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동아원만의 기업문화를 만들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2009 전국돈육생산자대회’서 단체상 및 개인 공로상 수상



▲ 강희순 이사(右)가 농식품부 장태평장관으로부터 개인 공로상으로 상금을 받고 있다.



▲ 이보균 사장(右)이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으로 부터 단체상을 받고 있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지난 12월 22일 과천 마사회에서 개최된 ‘2009 전국돈육생산자대회’에서 돈육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으로 부터 단체상을, 개인 공로상에 강화순 이사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 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재단 2009 기술자문위원회 정기 세미나 개최



▲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단국대 김인호 교수.



▲ 기술자문위원회 정기세미나 참석자 단체 사진

(사)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김기용)은 지난 11월 26일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분당 본사 대회의실에서 “2009년 기술자문위원회 정기 세미나”을 열고, 축산 사료 학계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알아보는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문위원인 양돈분야 : 김인호 단국대 교수, 축우분야 : 오영균 축산과학원 연구원, 수의/애견분야 : 윤화영 서울대 교수, 축산경영브랜드분야 : 한성일 건국대 교수들이 각 주제 별로 20분씩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별 발표 이후에 참석자들과 최신 연구에 관한 폭넓은 토론이 이어졌다.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기술자문위원회는 1999년부터 시작하여, 총 28명의 축산, 사료 학계와 업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최신 연구 동향을 토대로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

매일 가정에 정기배달 되는 (주)트루라이프 愛 두부 3종 출시

배달 두부가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우유·신문·녹즙 등이 대부분이었던 가정배달 시장에 더 다양하고 까다로워진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이색 품목들이 추가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정식 맞춤형 친환경 식품유통 사업을 전개하는 (주)트루라이프는 최근 출시된 신제품 愛(애) 두부 배달 신청고객이 매월 3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제품 愛두부는 GMO 검사를 완료한 100% 국내산 1등급 웰빙 원료를 업계 최초 특허 받은 저온콩 물가열방식으로 만든 뒤 압착하지 않고 자연응고 방식으로 제조해 2배 더 진하고 고소한 프리미엄급 두부. 검은 참깨·잣·검은콩 3가지로 270g에 가격은 3천원대다.

愛 두부는 먼저 주문을 받고 난 뒤 주문량 만큼만 생산 후 신선식품의 안전 보관과 신속 배송 노하우를 구축한 택배회사를 통해 익일 배송되며, 매주 원하는 요일에 받을 수 있다. 수입산 원료로 대량생산 후 장시간 상온노출로 신선도가 떨어지는 두부와는 달리 국산원료로만 만들어 바로 가정에 보내주는 ‘두부 배달’이라는 신개념 맞춤 서비스인 것.

최원일 식품사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다이어트와 미용 및 건강에 두루 좋은 완전식품 두부를 우유처럼 매주 집에서 배달받는다는 전략이 주효한 것 같다”며 “가평산 잣이나 포천에서 재배한 콩, 1등급 국내산 검은 참깨 등 국내생산량이 극히 적어 일반마트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이색 컨셉트 두부라 깐깐한 여성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 바쁜 아침 깨끗하게 손질돼 바로 먹을 수 있는 과일류를 배달해주는 스낵박스(www.snackbox.co.kr), 매주 다른 레시피와 식재료, 양념까지 배송돼 초보자도 쉽게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매직테이블(www.magictable.co.kr), 저렴한 가격으로 매주 도서선정위원회 자문을 받은 교육도서를 렌탈, 배달해주는 해피북랜드(www.happybookland.co.kr) 등 다양한 가정식 맞춤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 (주)트루라이프는 국내 최초로 계란을 낳은지 24시간 안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업체로 오늘 먹는 계란, 레시틴 함유 유기농 요구르트 오늘아침 레뜨레 등을 판매하며 건강컨설팅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1:1 건강컨설팅 서비스도 해준다. 배달은 전 지역 가능하며(건강컨설팅 서비스는 서울 경기지역 가능),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www.etrulife.com/고객만족센터 080-999-1799)

2010 경영전략 발표회 개최



▲ 초일류식품종합그룹을 다짐하는 트루라이프·서부사료 임직원

초일류식품종합그룹으로 한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는 지난 12월 11일 일산 웨스턴빌딩 대강당에서 ‘2010 경영전략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 2010년 그룹 경영전략을 ▲보증할 수 있는 식품생산 체계 운용 ▲식품사업 확산 ▲해외사업 활성화 ▲그룹사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으로 정하고 각 본부 및 13개 팀, GMG 중돈과 웨스턴 사관학원, 웨스턴 레포피아 등 관계사의 전년도 실적 및 2010년 경영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부그룹은 특히 2010년의 키워드를 ‘생존’과 ‘성장’으로 정하여 컨설팅 부문 강화 및 식품사업본부 및 해외사업부문의 도약, 신 사업부 본격 운영 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세진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창사 40주년을 맞이했던 올 한해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노력해 준 노고를 치하한다. 새해 어떤 악조건에 놓여도 BSC(성과관리 시스템) 체계도 및 KPI(핵심실행지표)를 철저히 점검하여 우리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주)우성사료

“우성 2530 클럽” 개최



(주)우성사료는 지난10월 28일 전주 리베라 호텔에서 충청과 호남지역의 양돈경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성2530클럽”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성2530클럽”의 의미는 MSY 25두, WSY 3,000kg, 사료효율 3.0을 목표로 하는 양돈 경영인들의 모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농장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최우수 농장으로 선정된 벨엘농장(전남 광양)은 MSY24.3두, WSY2,832kg, 사료효율2.85의 우수한 성적과 함께 A,B등급 84.0%, 육질1등급이상 88.7%의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정진농장(전북 정읍)은 질병과 화재 등의 악재를 딛고 MSY21.3두, 사료효율3.0을 기록하였으며, 진영축산(전북 부안)은 모돈 686두 규모에서 MSY21.4두의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우성사료 이금택 양돈PSM은 최근 양돈 상황을 소개하며 “막연히 불황을 걱정하기 보다는 상생의 협력을 통해 호황을 준비하고 모두가 “우성2530클럽”의 목표인 MSY 25두, WSY 3,000kg 이상, 사료효율 3.0 이하의 목표를 달성하자”고 다짐했다.

우성사료는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노텍” 사료와 “피그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노텍 사료는 곡류 가공 특허기술인 CPT 공법과섬유질원료 가공기술 FPT 공법을 통해 더욱 안정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의 양돈업을 살리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각각 농장의 문제를 사안별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피그팜 솔루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양돈 우수농장의 날 행사 실시

또한 우성사료는 지난 11월 26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천안지역 양돈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MSY 23두 이상의 3개 농장과 우성사료의 양돈 서비스 프로그램인 피그팜 솔루션을 적용한 성적 개선사례도 소개되었다.



소개된 농장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 반제농장(박부환대표) : MSY 23.8두
- 굴티농장(임태식대표) : MSY 23.4두
- 장안농장(장시섭대표) : MSY 23.1두

이번 행사를 진행한 우성사료 성용경 양돈부장은 "사양관리, 질병관리 등의 기초관리는 기본이며, 종돈관리(임신, 포유, 후보돈), 농장 맞춤 환기컨트롤,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년 365일 돈가변동에 따른 자금걱정 없는농장이 진정한 우수농장"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양돈농가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증가되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로 돈 버는 농장과 그렇지 못한 농장의 차이점은 생산성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함께 소개된 충남 아산소재 할렐루야 농장(김현병대표 : 모돈 600두)은 눈으로 보는 BCS와 등지방 측정을 통한 체계적인 모돈관리, 전산관리로 번식성적의 향상과 더불어 이유자돈의 체중 극대화와 이유 후 폭발적인 성장 사례를 소개하였다.



우성사료의 이노텍 사료는 곡류가공 특허기술 CPT공법과 섬유질원료 가공기술 FPT공법을 통해 더욱 안정된 품질과 높은 품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화된 지역의 양돈 담당자들은 '위기의 양돈업을 살리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각각의 농장문제를 사안별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피그팜 솔루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